

미래의 출판은 어떻게 되나

전자출판의 현황과 전망

이기성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 강사

낮선 기계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했다.
“아직도 더 남았느냐?”

“그럼요. 워낙에 최신장비가 돼나서요, 헤.”
우룡생이 말끝에 토씨처럼 간사한 기침웃음을 덧붙였다.

“끄응. 정말 이 기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던 말이지?”

“아이고. 걱정일랑 허리춤에 꼭 붙들어 매 두셔도 됩니다, 헤.”

“그래도 나는 어쩐지....”

장동팔씨는 우룡생의 말투가 몹시 못마땅했지만, 꼭 눌러 참으면서 못미더워 하는 자신의 심정을 슬쩍 내비쳤다.

“진짜라니까요. 이진 확실해요. 0.00001%의 오차도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더 미덥지 않은 게야. 우리가 하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예술!”

장동팔씨는 어제밤만 해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던 그 말을 기어코 털어놓았다.

“아이고, 좌룡생 선생님은 정말이지 이젠 늙었어. 아, 기술이나 예술이나 그게 그거지요. 다같이 술자 들림이고, 얹어치나 메치나 결과만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영어도 모르십니까? 영어로는 기술이나 예술이나 똑같이 아트라고 해요, 아트!”

이렇게 말하면서 우룡생은 꼭 텔레비전처럼 생긴 컴퓨터 단말기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거였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달후—

“선생님, 드디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젠 좌룡생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신화와 같은 힘을 얻게 된 거라고요.”

우룡생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에 달떠 소리높여 외쳤다. 그렇지만 정작 좌룡생 장동팔씨는 뭐가 뭔지 그저 멍한 기분일 따름이었다. 어떻게, 자기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필생의 대작이 나올 수 있던 말인가!

“이제 단추만 누르면 모든 게 끝입니다. 선생님께서 그토록 갈구하시던 예술미 풍부한 무협문학작품이 이 프린터를 통해 실재없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없는 게 없어요. 이 조그만 디스켓 한장에 무려 천권의 책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말씀만 하세요. 어떤 메뉴로 헤드 릴까요? 고린도전서체에다 셰익스피어를 30% 가미할까요? 아니, 아무래도 셰익스피어가 많은 게 좋겠지요? 오델로풍 40.5%에 모파상을 15.7% 더하고, 예, 또, 누가 좋을까? 말씀만 하세요. 도스토예프스키? 연암 박지원? 그래도

무협지라면 뭐니뭐니 해도 저 위대한 와룡생 선생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그럼 자, 와룡생이 몇번이더러..... 아 참, 단추를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책만 끝나면 좌룡생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책의 판권은 제게로 오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뭐, 제가 선생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헤헤, 모든 걸 이 기계처럼 확실하게 해놓자 이거죠. 과학적으루다가, 헤.”

그리고 다시 며칠후, 무협문학의 발전을 갈구하던 독자들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좌룡생의 저술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 그것은 기대했던 대로 놀랍기 그지없는 작품이었다. 신문이나 문학잡지에서는 앞을 다투어 당대 무협문학의 최고봉 좌룡생의 새 작품을 서평으로 다루었다.

— 셰익스피어적 무협문학, 중원을 강타하다

— 괴테와 니체와 톨스토이를 능가하는 좌룡생의 한판 승부

그러나 어느 기자도 정작 당사자인 좌룡생 장동팔씨를 직접 만난 이야기를 기사로 쓸 수 없었다. 책이 나온 날, 장동팔씨는 멀리 지리산으로 떠난 산행길에 올랐던 것이다. 눈덮인 산을 허덕허덕 오르면서, 그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우룡생이 맞을지도 몰랐다. 진정한 리얼리즘 작가라면 시대의 변화 그 한복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불살라야 하는 것이므로. 과학기술의 발달을 외면한다는 게 곧 예술의 승리라고 할 수만도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지만 한걸음 한걸음 힘들여 산을 오르는 동안, 그는 분명 이진 아니다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혀갔다. 그렇다. 좌룡생은 어디까지나 좌룡생일 뿐, 비록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된다면 펜을 놓는 한이 있더라도 메피스토에게 영혼을 파는 파우스트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비록 부족함 투성이었지만, 자신이 기깅거리며 퍼냈던 작품들이 삼십년을 지지고 볶으며 함께 살아온 아내처럼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는 천왕봉 마루에 올라섰다.

— 이 글이 인류문명의 진보를 위해 애쓰는 진정한 과학기술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국내의 총 4,763개 출판사(1989년 9월말 현재) 중에서 약 5%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1988년말 현재 148개 출판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보급속도이지만, 디스크책과 화면책의 제작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몇 군데 대형출판사에서 시도하는 CTS와 DTP의 연결작업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산학협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종 선택과 한글코드의 선택은 출판계와 저자·독자에게 널리 사용되는 컴퓨터 기종이 아닌 특수 기종을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경비를 들이고도 아깝게도 그 성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시도와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 조그만 출판사이지만 인포메이션에서 출판된 「컴퓨터 용어사전」은 본격적인 디스크책의 효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컴퓨터 메이커에서 제작한 게임용 디스크책이나 게임용 디스크책은 이미 있었지만, 50만대 가량 보급된 퍼스널컴퓨터(이하 PC)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16bit IBM-XT, AT 호환기종용 디스크책은 국내 최초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출판계에서 사용되는 디스크에는 5.25인치, 3.5인치 디스크와 하드디스크, CD-ROM, 광디스크가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몇년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로필름이나 마이크로 피체가 문서보관용으로 각광을 받아왔었지만, 지금은 디스크책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출판이라고 하면, DTP보다는 전자조판(전산조판, 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을 주로 생각한다. CTS는 출판물 제작에 있어서 편집 및 조판과정을 표준화시키고 전산화하여, 출판사와 인쇄회사, 또는 편집부와 조판부, 또는 조판부와 인쇄부를 컴퓨터 통신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출판업무를 전산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편집이 완료되고 조판이 끝나면 출판사의 컴퓨터와 인쇄회사의 컴퓨터를 통신으로 연결하여, 인쇄회사의 출력기에서 자동으로 인쇄원판이 완성되는 방식을 말한다.

CTS와 달리, PC를 이용하여 원고작성부터 편집작업, 인쇄작업까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형태를 데스크톱 출판(DTP=Desk Top Publishing)이라 한다. 다시 말하여,

퍼스널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사진·도표 등을 입력시키고, 편집작업과 지면배치 작업을 처리하여 인쇄원판(인화지나 필름)까지 제작하는 것이다. 인쇄원판 뿐 아니라 인쇄물을 직접 프린트하는 것, 즉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여 프린트한 용지를 제본하여 적은 부수의 책을 제작하는 것 역시 DTP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도 DTP시스템이 삼보, 금성, 현대, 고려컴퓨터 등에서 개발되고 있어서 한글서체만 풍부하다면 외국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본다.

컴퓨터통신의 발달은 PC끼리 전화를 걸 수 있게 하였으며, 전화선만 있는 곳이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PC와 연결하여 한글로 원고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필자가 1989년 7월 후주의 시드니에서 서울의 PC와 한글로 통신을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출판사의 컴퓨터와 독자의 PC를 연결하면 독자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살 필요없이 집에서 책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전화선이나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책을 볼 때, 이를 화면책이라 한다. 미래의 책인 화면책을 보는데 필요한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은 리볼트, 메디콤, 한토크, 메아리 등이 이미 개발되어 있으며, 게시판(BBS) 프로그램에는 엠팔게시판(EMPAL BBS), PC-Serve, Kmail, Hanmail 등이 있다.

화면책을 볼 때나 소설가·출판사·교수 등이 원고로 작성한 한글데이터가 서로 다른 PC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것의 주원인이 바로 한글코드의 표준화가 잘못된 때문이다. 1987년 제정된 KS코드가 한글을 전부 다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할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현재 전자출판을 하는 출판계에서는 한글을 다 표시하는 2바이트 조합형 방식의 한글코드를 표준코드로 사용하고 있다. 출판계에서 한글을 모두 표시할 수 있는 한글코드를 표준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 조합형 코드에 맞춘 사진식자입력기가 1989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컴퓨터그래피의 입력기, STI의 입력기는 운영체계를 MS DOS를 사용하고, 한글코드도 전자출판계의 표준코드를 사용하므로 필자·저자·출판사·조판소 등에서 전부 사용할 수 있게(한글의 호환성이 있게) 되었다.